

광주·전남 기업들 “중국 수출 어렵네”

중 기술력 향상 철강·반도체 등 지역 수출품 타격 엔화 이어 위안화 약세 ... 기업 채산성 악화 부채질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 둔화세가 예상롭지 않다. 수년 새 기술력이 부쩍 성장한 중국이 철강과 반도체 등 지역 주요수출품의 수입을 줄이고 있는데다,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기업 수익성도 떨어져 중국 수출길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지역의 대중(對中)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광주는 지난 2월 이후 8월까지 6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전남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광주지역 전체 수출 규모 3위(전체 수출량의 8.82%), 전남은 1위(28.6%)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 최대 수출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수출금액만 광주 14억 달러, 전남 118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기술력이 투입되는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며 역 성장을 이끌고 있다. 광주에서 주로 수출했던 반도체와 기타전자응용기기 등 중간재 부분의 수출 둔화세가 특히 역력하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실적이 4억4000만 달러지만 올해는 8월까지 1억8700만 달러

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센서는 1억6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전자응용기기는 1억7300만 달러에서 38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중유·제트유 및 등유·나프타 등 가공무역 부문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나프타는 2012년 11억5300만 달러, 2013년 12억32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 8월까지 수출실적은 3억95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엔화에 이어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위안화는 지난 6월 위안·달러 환율이 6.1710위안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초보다 1.22%나 절하된 수치다. 이는 우리 지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전자, 석유화학,

식품업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 웨이하이에 김을 수출하는 한 수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익률을 핑계로 수입 업체 측이 대금 입금날짜를 조금씩 미루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수년 전에서야 김에 맛을 들여 기대가 높았는데, 이익이 남지 않으면 수입도 결국 끊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중국의 가공품에 대한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우리 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2.91 (+4.52)
- ▲ 금리 2.29%(+0.03)
- ▼ 코스닥 562.82 (-3.45)
- ▼ 환율 1066.10원 (-2.90)

조현상 효성 부사장, 룩셈부르크 왕세자 회동

타이어 사업 협력 논의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세빛섬에서 기욤 장 조세프 마리 룩셈부르크 왕세자와 회동했다.

7일 효성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마리 왕세자와 에피엔느 슈나이더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등 10여 명의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만나, 룩셈부르크 사업 지원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부사장은 “룩셈부르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효성 타이어코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욤 왕세자는 “효성의 사업 확대가 룩셈부르크의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양측이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조 부사장과 기욤 왕세자의 만남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효성은 2006년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로부터 룩셈부르크 타이어

HYOSUNG CORDIALLY WELCOMES

H.R.H. Crown Prince Guillaume & Luxembourg Government Delegation
2014. 10. 6



지난 6일 서울시 세빛섬에서 조현상 효성 부사장(오른쪽)이 이날 방한한 기욤 장 조세프 마리 왕세자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효성 제공>

코드 공장을 인수하고 유럽을 무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캠코, 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연체자 채무 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지난 6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장학재단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에 들어갔다. 조정 대상은 지난해 2월 말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 84도 동년상권 경쟁 심화와 소비 침체, 상품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실적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이월(98~85) 역시 불황과 상권 포화로 인한 매출 부진과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상승으로 영세 점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채감경기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일반채무자의 경우 30~50%,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분할권 중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채권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한 채권에 한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자산 등 상환

LH, 목포 백련지구 주택용지 1필지 매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목포 백련지구의 공동주택용지 1필지(3만㎡)를 매각이 153억원, 3년 무이자 조건으로 매각한다.

공급되는 토지의 분양면적은 3.3만㎡ 169만원이며 전용면적 60~85㎡형 222가구, 85㎡ 초과형 211가구 등 총 43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렴하다는 평가다.

목포 백련지구는 목포시청 인근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목포시항, 무안

국제공항 등이 차편으로 10분 안에 도달이 가능하다.

특히 인근 목포용해 2지구 단독주택용지가 지난해 수백 대 일의 높은 분양 신청률로 조기에 전량 매각되는 등 목포 권역 신성장축의 중심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분양 및 입찰 등의 공급 과정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시대 개막 7일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청서 개척식이 열린 가운데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 김영선 전남도행정부지사,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장인규 나주시장, 홍철석 나주시의회 의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AT 제공>

광주 백화점 ‘호전’, 마트·슈퍼·편의점 ‘부진’

광주상의, 4분기 경기 전망

다가오는 4분기 광주지역 백화점은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서민 체감경기와 밀접한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대형 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전분기와 같은 10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도는 결과로, 지역 소매 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백화점은 다른 업체보다 4분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백화점(100~112)은 산행 등 본격적인 야외활동 시즌 진입과 식품·명품관 등 주력 매장의 리뉴얼 완료로 관련 매출의 상승 기대감이 높고 지난 7월 중국 전세기 취항으로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새로운 고객으로 유입되고 있어 체감경기

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형 마트(102~93)는 마케팅 강화 등 판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매출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고, 슈퍼마켓(103~84)도 동년상권 경쟁 심화와 소비 침체, 상품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실적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98~85) 역시 불황과 상권 포화로 인한 매출 부진과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상승으로 영세 점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채감경기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생 89% “노후 위해 연금 필요”

연금공단 광주본부 설문 연금공단 광주본부 설문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89%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주순)는 지난 9월 한 달간 광주·전남 지역 6개 대학에서 대학생 1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 89.3%가 ‘국민연금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대학생 64.3%는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또는 수령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부모와 대학생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노후 생활비는 자녀 또는 친지의 도움(64명, 37.2%)에 비해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92명, 53.1%)는 답이 많았으며, 1533명(88.5%)의 대학생들이 ‘본인의 노후 생활비는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의 노후준비는 ‘취업과 동시에 시작한다’는 응답이 1003명(60.8%), ‘결혼 후’ 364명(21%), ‘취업 전부터’ 84명(4.9%)으로 20~3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대학생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 2층 참조은빌딩
● 3층 한길통증의학과
● 4층 신한은행
● 5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NAVER 72443511 단비플라워 늘려보내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

추천 회원		재혼	
남	女	남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전주 아미타운) (063) 275-7766

임페리얼 클럽